영산포 버스터미널 경영악화 장기화

인수업체 리모델링 불구 이용객 감소

주민들 "터미널 살려 도심 활성화 해야"

전남 서남부 지역 교통 요충지인 나주 영산포 버스터미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영산포 버스터미널은 지난 2005년 경매 절차를 거쳐 A씨가 인수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영산포 버스터미널은 하루 560여회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객수가 2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한때 20여 점포가 영업했던 버스터미널내 상가도 일부 문을 닫아 새 입주자 물색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객 감소로 터미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주변 상권도 덩달아 침체되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시가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산포 지역 주민들은 지난 2년전에도 터미널 살리기 운동에 나서 1천여명이 서명했다.

주민 김모(56)씨는 "영산포 터미널이 개인 소유이기는 하나 지역상권의 상징"이라며 "시 차원에서 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정남진서 '夜! 한밤 스타와 데이트'

'정남진 천문과학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기

물로켓 발사체험·알쏭달쏭 별 OX퀴즈 이벤트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가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매달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밤 12시까지 개관시간을 두시간 연장, 홈페이지(star.jangheung.go.kr)를 통해 신청한 연인이나 부부 등을 대상으로 '夜! 한밤 star와의 데이트'를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인의 별자리 찾아주기를 비롯해 사랑의 운세보기, 가상 가을철 별자리 여행, 4D 시뮬레이션 영상 관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상시 프로그램으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별자리와 성운·성단, 태양 흑점, 달 분화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밖에 물로켓 발사체험과 알쏭달쏭 별 OX퀴즈, 손수건을 활용한 별자리 그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오는 24일 회덕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일환으로 '찾아가는 천문 과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한다. 문의(061-860-0651)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허수아비로 왜군 물리친 염걸 장군을 아십니까

강진군, 대구면에 대대적 전승기념사업 추진

임진왜란 당시 명장(名將)인 염걸(廉 傑·1545-1597)장군 전승기념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유인, 대승을 거둔 대구면 미산마을 해안가에 염 결 장군을 기리는 전승기념비와 사당, 정각, 공원조성 등을 조성한다. 기념사업은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미산마을 일대 6천㎡ 부지에 2억 8천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8월 준공된다.

군은 이를위해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과 자문위원회 구성, 부지 매입 등에 들어갔다.

강진 출신인 염 장군은 1597년(선조30년) 왜적이 강진만 구십포로 몰려오자 초병처럼 만든 수백여 개의 허수아비로 적을 속인 뒤 정수사(淨水寺)계곡으로 유인해 섬멸했다. 이후 거제도 해전에서 동생 염 서, 외아들 홍립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으며 병조판서에 추증됐다.

인접한 칠량면 단월리에 있는 염 장군의 묘소는 지방문화재(36호)로 지정돼 있다.

군은 청자문화제 기간 동안 이곳 해안선에 당시 상황을 재현한 허수아비 군상을 전시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초겨울 상큼한 딸기

담양군 남면 정곡리에서 친환경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2일부터 수확에 들어간 담양 딸기는 1.5kg 한 상자 당 1만8천원선에 전국 유명 백화점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영광군, 수도권 소비자 초청 쌀 판촉활동

미곡처리장·관광지 견학도

영광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을 판매하기 위해 도시 소비자 초청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수도권 거주 소비자 120여 명을 군 농업기술센터로 초청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만남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질소 비료를 일반 벼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파종량을 줄여 밥맛 저하를 막는 등 영광 쌀 고유 브랜드인 '탑 라이스'의 남다른 재배 과정이 소개됐다.

또 소비자들이 도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RPC(미곡처리장)를 개방하고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와 영산성지, 염산 기독교 순교지 등 주요 관광지 견학 기회도 제공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애향심이나 농촌 살리기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판촉활동을 탈피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같은 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해남 '미술촌 화원' 개관

해남에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2005년 5월 폐교된 해남군 화원동 초등학교 분교에 10일 문을 연 '미술촌 화원'은 초대작가 5명과 미술촌 소속 예술인 8명의 글과 그림, 도예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민족미술인연합 소속 8명의 예술인들이 개관한 미술촌 화원은 앞으로도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화원중학교 사물놀이팀과 진도북 춤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도 펼쳐졌다. 산이면 황토밭과 고천암의 풍경을 즐겨 그린다는 김호원 씨는 "앞으로 작품 속에 녹아든 해남의 모습과 문화가 창작품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장성 새 공동브랜드 '365생' 확정

고품질 쌀·사과·배·단감·토마토 등 6개 품목

'홍길동'에 이어 장성군의 새로운 공동 브랜드로 '365생'이 확정됐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농협 조합장과 농협,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후보작을 심사해 '365생'을 새 공동브랜드로 결정했다. 장성군은 이달 말 포장재 디자인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내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365생'은 고품질 쌀을 비롯해 사과, 배, 단감, 토마토 등 6개 품목에 우선 사용되며, 운영은 장성군 농협연합사업단이 맡게 된다.

장성군은 2년 단위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365생'의 사용 품목을 결정하며 이를 위한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와 상표 사용료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경기 광주시민 40명 구례서 감따기 체험

경기도 광주 시민 40여명이 지난 8일 구례읍 다무락 마을에서 감 따기 등 농촌체험행사에 참가했다. 〈사진〉 이들은 직접 감을 따며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했으며 반짝 직거래 장터에서 200여만원 상당의 감을 구입했다.

또 구례 5일시장에 들러 미곡과 채소, 건어물 등을 구입하고 시골의 따뜻한 인심도 체험했다.

다무락 마을은 지난 2003년부터 농촌 테마 마을로 지정돼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